

## 신정훈 vs 민형배 vs 김영록 '운명의 날' 밝았다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5번>

### 6.3 지방선거 D-6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민형배 국회의원·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의 운명을 가를 사흘 간의 본경선이 3일 막을 올린다. 특히 본경선을 앞두고 막판 급물살을 탄 후보 단일화 등 '합종연횡'이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경선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조직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인 만큼 후보별 지지 기반 결집력과 확장성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본경선은 예비경선 이후 후보 간 단일화와 정책 연대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3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당초 본경선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기정·신정훈 후보에 이어, 민형배·주철현 후보 간 단일화로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의 3강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최대 관건은 단일화가 각 후보 진영의 지지층 확장으로 실제 이어지느냐 여부다. 단일화와 연대를 통해 단순 지지율 결합 수치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탈락 후보의 지지층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강기정 후보, 주철현 의원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성공해야 지지를 확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록 후보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의 선대본부장 합류로 취약이었던 광주지역 기반을 확장했고, 이개호 국회의원의 측근 지원까지 더해 세 결합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통합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하며 다른 후보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네거티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결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50%인 만큼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확장성, 정책 경쟁력이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권리당원 투표 역시 50%를 차지하는 만큼 조직 기반 결속력 또한 판세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전남·광주 권리당원은 약 31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2만명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기초·광역의원들과 단체장

오늘부터 3일간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권리당원 50%+일반 50%' 방식 촉각

막판 '합종연횡' 표심 향배 이목 집중

지역 분할 구도상 과반 득표 힘들 듯

1·2위 후보간 결선투표 성사 가능성 ↑

"탈락 후보가 최종 '캐스팅보트' 전망"

후보들이 조직적으로 모집한 이른바 '오더당원'들이 대거 편입됐음을 방증한다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분석이다. 일반 여론조사까지 거대한 조직표의 동원력에 의해 희석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경선이 임박하면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과 세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일화와 정책 연대 이후 확보한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부동층 흡수를 위한 메시지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감안할 때 3명의 후보가 본경선에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계적으로나 지역 분할 구도상 과반 득표자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3명의 후보 중 누구라도 탈락할 수 있는 구도인 만큼 본경선이 끝나는 5일까지 각 후보 진영 간 신경전과 세 규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12-14일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결선투표가 성사되면 3위로 탈락한 후보가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 공산이 크다. 탈락 후보가 1·2위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느냐에 따라 1대1 맞대결 판세가 급변할 수 있어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본경선에서 3명의 후보가 표를 끌고 나뉘어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오히려 누가 탈락하느냐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며 "살아남은 1·2위 후보가 필연적으로 3위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어 본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 판세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세 단장 마친 '빛의 음악분수' 2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분수가 아름다운 조명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5·18민주광장의 대표 야간 경관 콘텐츠인 '빛의 음악분수'는 화려한 분수 연출과 음악을 결합한 공연형 분수로 정식 가동에 앞서 시스템 점검과 시험 운영을 진행 중이다. 빛의 음악분수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는 오는 4일 첫 선을 보인다. /김애리 기자

## "봄 기운 만끽하며 함께 걸어요"

제26회 전남광주특별시가족사랑 걷기대회  
내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천변 일원

"봄 기운 가득한 연초록 녹음 걸으며 힐링하세요."

'제26회 광주매일신문 전남광주특별시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가 4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과 광주천변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육상연맹과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시민 800여명이 참가해 오전 9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회식을 갖고 광주천변길 일원 왕복 5km, 7km 등 2개 코스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걷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스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16면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는 뜻 깊은 이날 행사는 (사)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나눔의안마봉사를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풍선아트, 석고방향제·모루인형 만들기, 슈링클스 메달·팬시 꾸미기, 캐리커처·명함 드



로잉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생수는 물론,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5인칭 TV, 믹서기 세트, 선풍기, 사진 촬영권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특히 식전·식후 태권도 시범공연, 정윤호 미술사의 마술 공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축하무대가 열려 어울림과 감동을 함께한다.

'걷기를 통해 가족 사랑도 확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천하자'는 슬로건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는 매년 사·도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알차고 내실있는 생활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Island, Connecting the Ocean and the Future

전라남도 JeollaNamdo  
여수시 YEOSU CITY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2026.9.5.토 - 11.4.수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